

〈군자 교육공동체의 날〉 학부모 연수 자료

2023. 3. 15.

■ 2023학년도 군자교육과정 소개	1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4
■ 부패방지 청렴교육	5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육.....	11
■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12
■ 아동학대 예방교육	14
■ 가정폭력 예방교육	16
■ 학교폭력 예방교육	18
■ 교육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
■ 교통안전교육	21
■ 개인정보보호교육	22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23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24
■ 학부모 장애인식 개선 연수	25
■ 보건교육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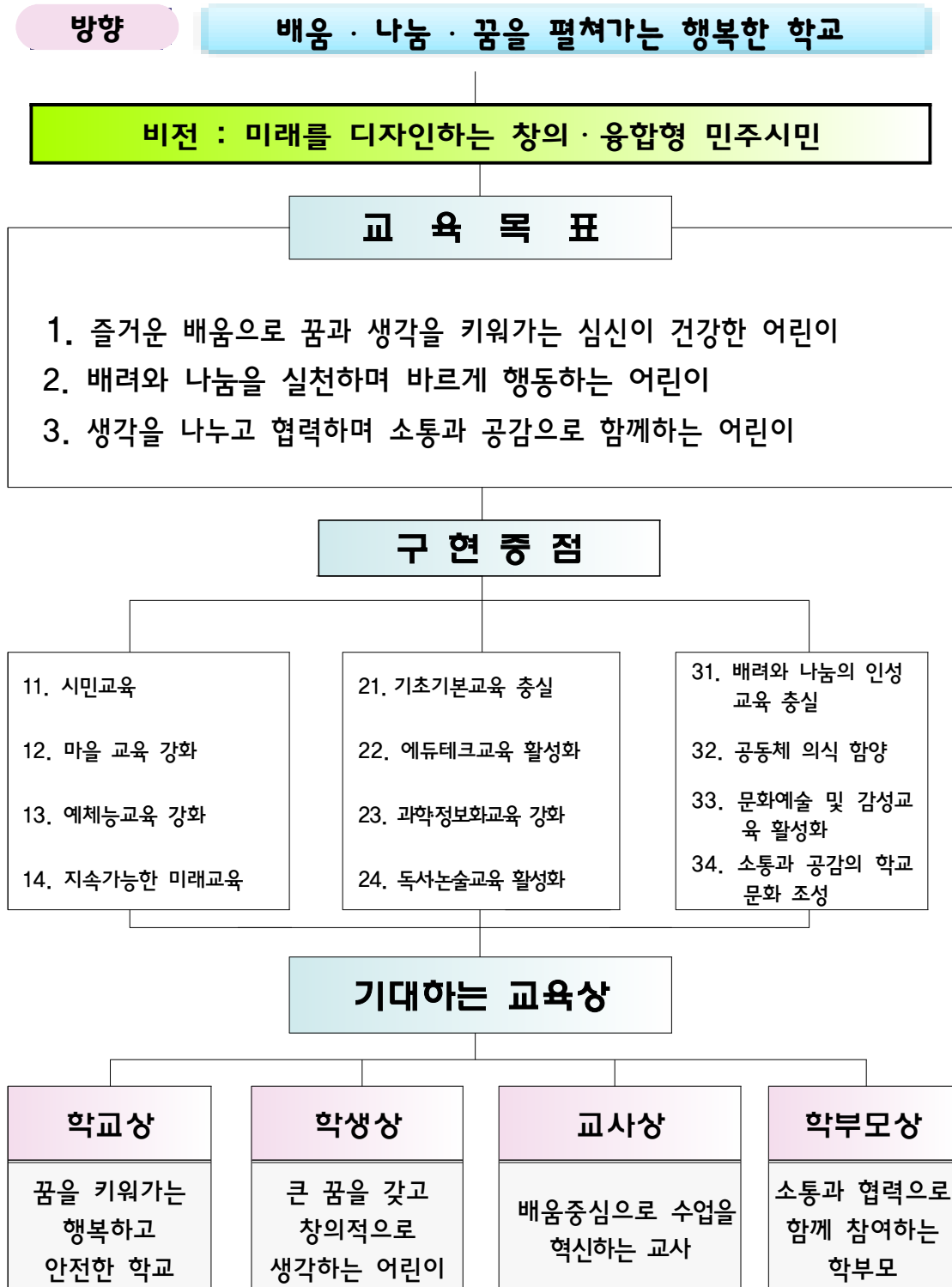


군자초등학교

<http://www.kunja-asn.es.kr/>

<군자교육과정 소개 자료>

1 군자 교육 기본 체계



2

교육공동체의 지향점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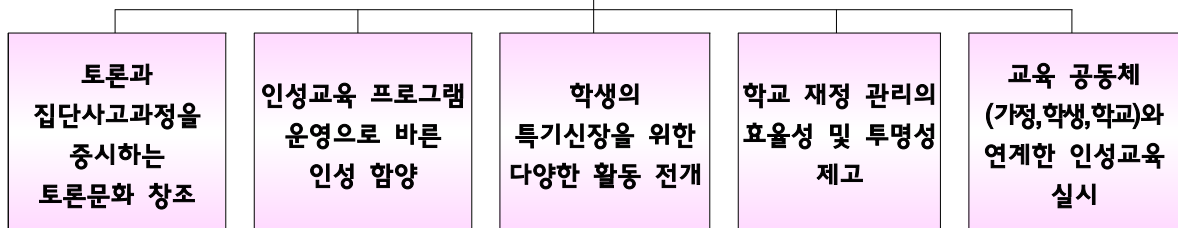
- 인성교육 강화로 바른 인성 함양
- 소통과 협력 중심의 교육풍토 조성
-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전개
- 배움중심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가 존중받는 현장중심의 장학활동 전개
- 창의성 교육의 충실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



공공성 역동성 창의성 민주성 국제성



소통과 협력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경영



3

군자 특색 · 중점

특색 ·
중점 1

『배움이 커가는 즐거운 학교』- 배움 두드림 프로젝트

- 학생맞춤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기본교육 강화
- 집단지성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특색 ·
중점 2

『나눔과 배려로 평화로운 학교』- 나눔 두드림 프로젝트

- 더불어 함께! 행복 공감 실천교육 및 학생 인성교육 강화
- 참여하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학생자치

특색 ·
중점 3

『소통과 협력으로 꿈이 자라는 학교』- 꿈 두드림 프로젝트

- 끼 톡톡! 꿈 쑥쑥!! 문화 예술 감성교육
-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 프로그램을 통한 에듀테크 교육

4

2023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 각종 사업 현황

구분	제목	대상 학년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예술체육융합프로젝트	전체 학년
	학교안 공유교실	전체 학년
	동네교육과정	전체 학년
	학교자율과정	1,3학년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시흥의 사계)	2학년
	시흥 다가치 평화학교	5학년
	생존수영	5학년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교육지원	전체 학년
	에너지로 그린학교	5학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3학년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4학년
	호조별 벚짚체험	3학년
	시흥창의체험학교	전체 학년
	체육 꿈나무 지도자 육성	육상부
경기도 교육청	두드림학교	전체 학년
	학생 맞춤형 선도학교	전체 학년
	교육 국제화특구 교육과정 운영 협력학교	1,2,3,5,6학년
	스포츠강사 연계 체육교육 지원사업	4,6학년
	예술강사지원사업	3,5,6학년
	이중언어교육사업	전체 학년

이 외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음.

5

2023 경기 미래교육 운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금지 연수

■ 공교육 정상화법의 이해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시행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 중 고 등 학 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기, 학년, 학년군별)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교내대회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청렴교육>

1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1. 주요 유형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2.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구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3.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관행 잔존

- 학교행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4.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근절의지 부족과 소극적 대처

- 학부모들이 모금 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

< 참고 : 사례 >

1.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금전을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날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가 간식, 선물 등이 제공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기념품, 간식 등 물품 제공 계획을 사전 인지하고도 학부모들의 자발적 의사로 간주해 조치 없이 묵인

< 학교체육 진흥법('13.1.27.시행)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11.30.시행)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이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16.9.28. 시행)

I 법률안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②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③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④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의 금지 ● ●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 제1항)

- | | | |
|-----------------------------|----------------------------------|----------------|
| ①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② 행정처분·형벌부와 감경 면제 | ③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⑤ 공공기관 주관 포상·수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
|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
|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
| ⑩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⑪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
|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⑮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

부정청탁 예외 사유 7가지

- | | |
|---------------------------------|-------------------------------------|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
|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등 |
| ④ 법정 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⑤ 직무·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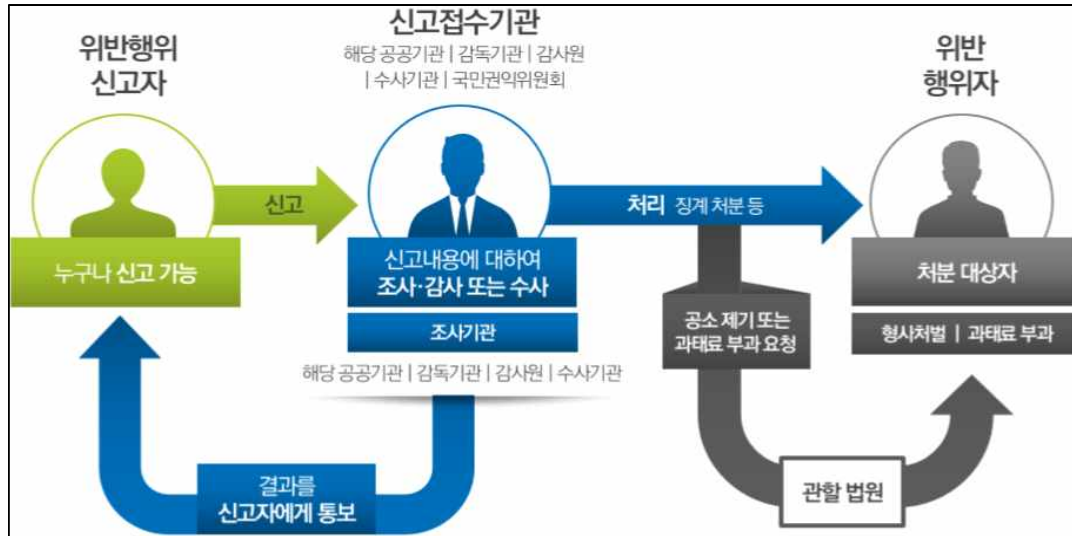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

공직자등(또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 원할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

2018.1.17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 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 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
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서약서 제출 대상

제42조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 이란	“공직자등” 예시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기간제 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 - 각급 학교 근무 계약직(다만, 방과후 강사, 시간강사, 자원봉사자 등 제외) - 학교법인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자

3 2023학년도 공익신고자 보호

1. 주요 내용

▶ 취 지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위협 등 불공정 부패 행위를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보호.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건강.안전 등과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에서 벌칙.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하는 위반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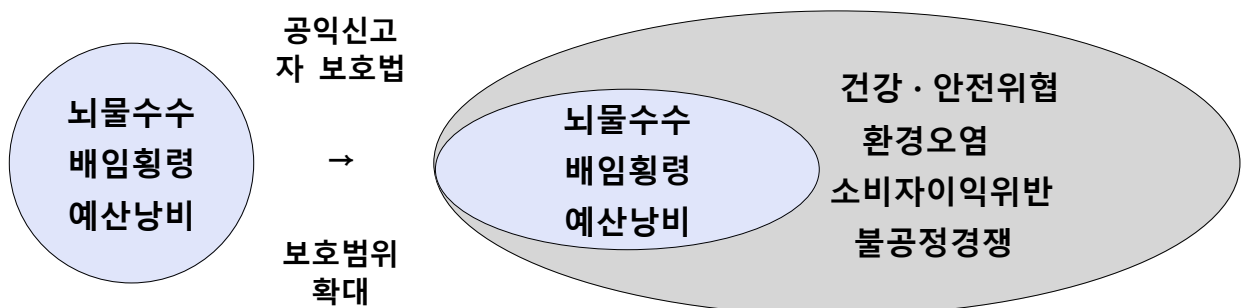
▶ 신고 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

▶ 보호 및 지원 사항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등
- 보 상 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수입 증대 시 보상
- 구 조 금 :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

2.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가능



3. 공익침해행위 유형

공익 침해 분야	건 강	안 전	환 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주요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사례	■오염된 혈액유통	■삼풍백화점 붕괴	■낙동강 페놀 유출	■가짜 참기름 유통	■LPG 가격 담합

4.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구체적 내용

○ 신고 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신고 대상법률 : 11개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시행령 [별표1] 공익신고 대상법률 : 총 169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철도안전법, 산림보호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주요 보호조치 :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등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 지자체의 수입증대 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비용 지출 시 구조금 지급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육

•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2022. 12. 시행)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3월 14일까지 고시 후 확정 시행 예정)

-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변화에 주의 기울이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1.5%의 학생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 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 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너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너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까?"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UN아동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의 4가지 권리

1.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3.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	---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4. 아동학대범죄란?

-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 간, 유사강 간, 강 제추행, 준강 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학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성인기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정서학대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낮은 자아 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 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음.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방임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영유아기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함. ·저학년기 학습준비도가 떨어짐.	성학대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 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6.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내

- 1) 아동학대치사(제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아동학대중상해(5조) : 3년 이상의 징역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테스트

▶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학교폭력예방교육



1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3 학교폭력의 징후

가해 학생	피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에게 받았다고 비싼 학용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님 ·용돈에 비해 씀씀이가 해품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목격됨 ·부모나 교사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언행이 자주 나타남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어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적임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아짐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며 지각을 자주함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함 ·예전보다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갑자기 도벽이 생김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파손됨. ·잠을 잘 못 이루고 잠꼬대를 하거나 악몽을 꾸다고 함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 됨 ·매사 의욕이 없고, 혼자 멍하니 있거나 깜짝깜짝 잘 놀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지 않거나 친구들과 교류가 갑자기 없어짐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자주 내거나 동생이나 엄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죽고 싶다', '학교가기 싫다' 등의 낙서가 보임

4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 방법

가해 학생	피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5 학교폭력 예방하기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평소 자녀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 친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어른들(선생님, 부모님)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내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 ▶ 자녀에게는 존중과 배려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합니다.

6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2023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목표와 중점 내용

- 목표 :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중점 내용 :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추진방향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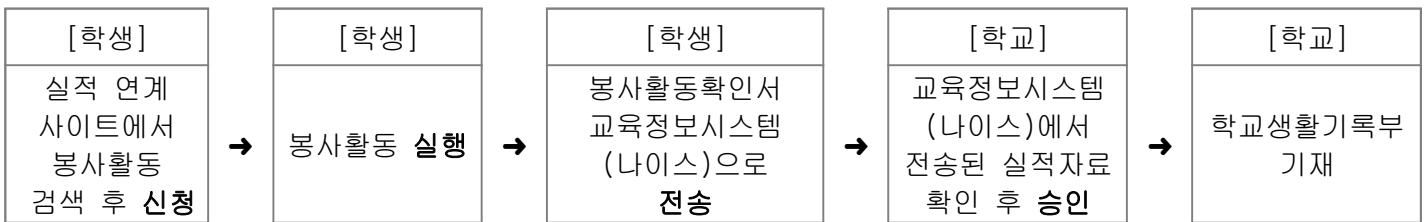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봉사활동 인정 시간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임

■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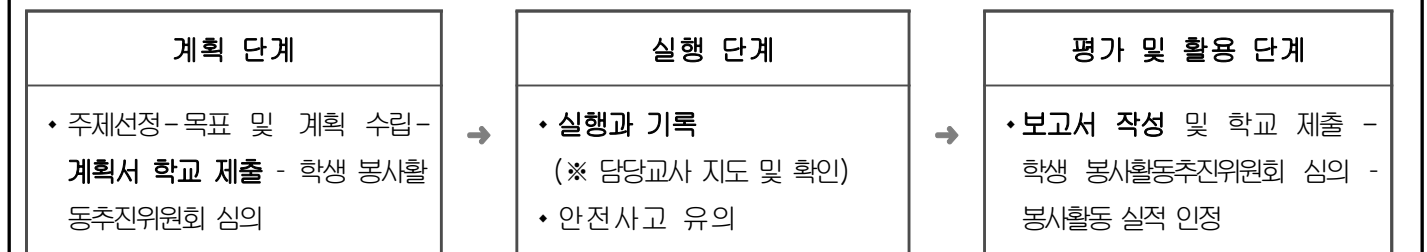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가지 영역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봉사활동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시간 실시하는 것



■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학교 홈페이지 「2023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행동특성

가. 항상 뛰려고 한다!

사례1. 찾길 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찾길 건너는 시간을 최소화 하려 합니다.

사례2. 등교시간이 늦은 경우 차가 오는지 보지 않고 빨리만 건너려고 합니다.

나.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능력이 뛰어나다!

사례1.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옆에 있는 어른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어린이 역시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다.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

사례1. 내가 지나가면 모든 차가 멈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통안전 교육방법

가. 길을 건너기 전 우선 멈추기 :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나. 횡단보도에서 차를 계속 보기

- 막연히 잘 보라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대상물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에는 왼쪽의 차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서는 오른쪽 차를 본다.”

다. 손을 들고 건너기 : ‘내가 갈 테니 멈추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라.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기

마.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과 함께 건너기

바. 빗길 보행 시 우산으로 시야를 막지 않기

사. 바퀴가 있는 장비 이용 시 보호 장비 착용 (이륜차 안전교육)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류(스케이트, 썬) 등은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팔이나 다리의 골절을 예방합니다.

아. 차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바퀴 달린 기구를 이용하기

자. 학교 통학 시 자전거, 썬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금지

● 안전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

가. 자녀 동반 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역할모델을 통하여 자녀가 혼자 다닐 때도 안전하게 다니게 됩니다.

나. 무단횡단은 자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는 모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갈 때도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다. 비가 올 때는 자녀에게 밝은 색의 옷을 입혀줍니다.

-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라.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입니다.

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데려갑니다.

바. 날씨가 추울 때 정면을 보면서 가는 것을 알려 줍니다.

- 날씨가 추우면 일반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이며 땅을 쳐다보며 가게 되어 앞에 지나가 차량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소, 전화번호, 나이, 학교, 성적, 반, 번호, 키, 몸무게 및 각종 온라인 아이디, 비밀번호 등 나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도 나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는 왜 소중할까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누군가 나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내가 위험에 빠진 것으로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보이스 피싱 등)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

- 스마트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반드시 잠금 설정 및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시 생일, 휴대폰 번호 등으로 설정하지 않고, 간단하거나 연속된 숫자는 피합니다.
- 친구 및 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SNS 등에 전체 공개로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벤트 응모 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지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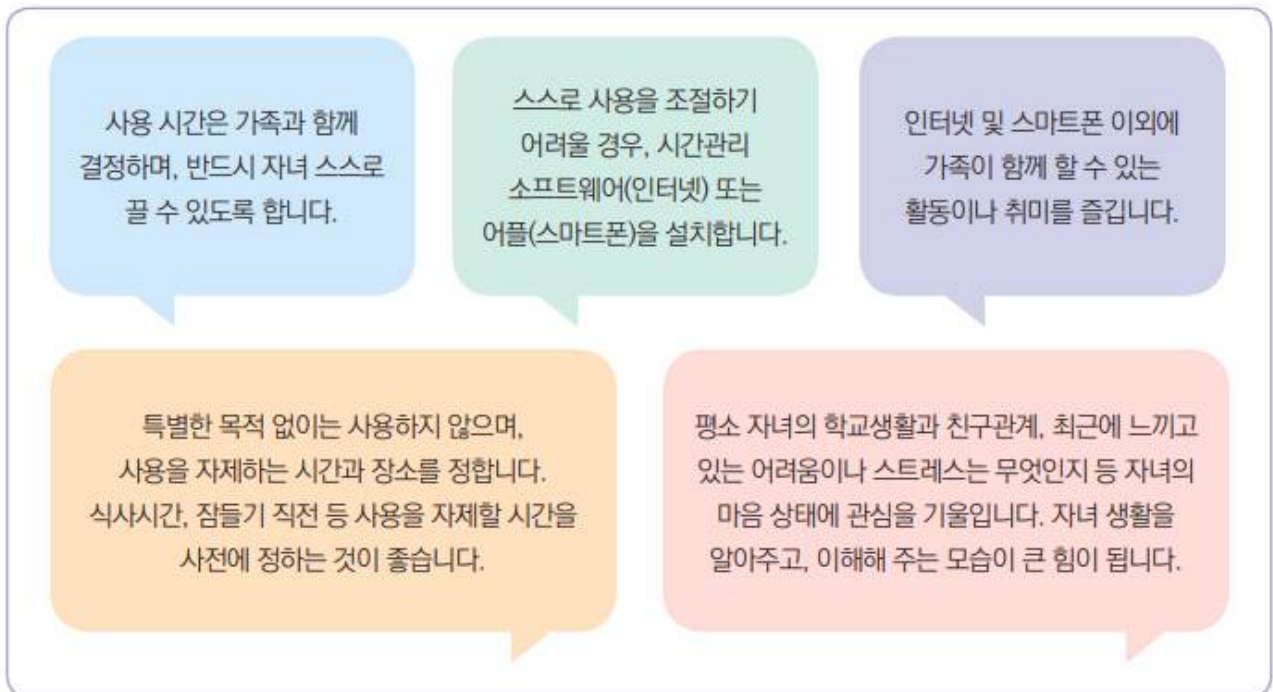
-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다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로그인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발견한 경우 바로 로그아웃을 하여 계정을 보호하도록 해 줍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과의존 예방 단계별 가이드라인

단계 1 (R: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기의 신체·정신건강, 사회성 발달 그리고 안전에도 해롭습니다.
단계 2 (E: 스마트폰 사용 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와 아이 모두 평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과의존 점검방법: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https://www.iapc.or.kr/)
단계 3 (S: 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방안 및 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하느라 수면 부족? 아이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 주세요.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선용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온라인 활동에 참여, 공유해 보세요. 아이에게 다양한 여가·사회 활동을 권장하고 함께 해주세요.
단계 4 (T: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자·아이 간의 관계 양상도 변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례화하고, 공감을 토대로 소통해주세요. -아이 또는 자신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사용 지도, 이렇게 해주세요.



■ 사용 조절을 돕는 앱(사이버 안심존: <https://ss.moiba.or.kr/index.do>)

■ 유해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그린 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 평소에 대화를 통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 음란물과 폭력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합니다.
- 자녀와 사이버폭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이버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 자녀가 사이버 공간에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자나 학교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도록 알려주세요.

사이버폭력, 여기로 신고해주세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청)

- ecrm.cyber.go.kr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제보 서비스 제공

☑ 방문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문자/전화신고

-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7
- 문자신고 #0117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자녀, 이렇게 공감해주세요.

-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를 책망하거나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는 말을 하여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 이야기를 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동안 자녀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주어 자녀가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I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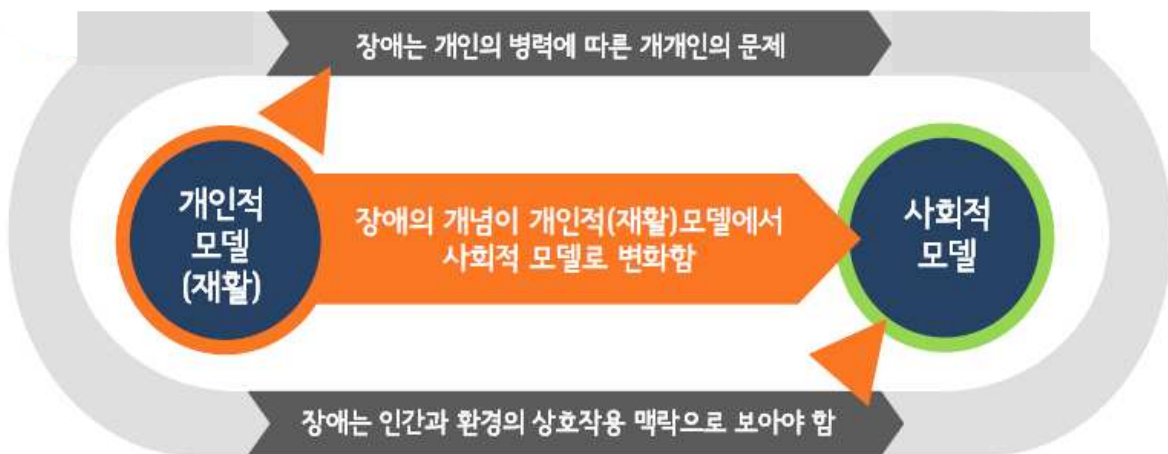
● 제정목적 및 의의

1.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2.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장애인차별금지의 제정 배경 I

- ▶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보장 요구 등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 ▶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례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은 미비한 상태임
- ▶ 인권차원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사회통합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

● 장애인차별금지의 제정 배경 II



● 제4조 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표시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사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 제5조 차별판단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에 따른 차별로 봅니다.
2.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6조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1.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p>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p> 	<p>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p>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p>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 거부를 말합니다.</p> 	<p>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p> 

2023학년도
보건교육

1. 코로나19 예방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3. 흡연예방 및 약물오남용 교육
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5. 비만예방

◆ 코로나19 개인방역 5대 수칙 준수(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②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022. 9. 30.

질병관리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5

2022. 9. 30.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3/5

2022. 9. 30.

질병관리청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①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4/5

2022. 9. 30.

질병관리청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동참해주세요.



5/5

- 항상 가정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 위험요인(인후통, 고열, 기침과 같은 유증상, 동거인확진 등)이 있을 시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 필요 시 마스크 착용 후 등교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1.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 에 증상여부 입력 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실시 2.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 권고 3.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확진자	1.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2. 자가진단앱에 '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초록색 버튼) 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입력하기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은 10일간 권고 준수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등교)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성폭력 예방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통·유포·협박·저장·전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사이버성폭력 예방

조심해야 할 것

-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오래 사용하지 않기
- ☑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기
-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이렇게 행동해요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자신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전송

친구가 몰래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크'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사이버성폭력 예방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s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s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심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2

흡연 예방 교육 및 약물오남용 예방

청소년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약물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해독은 그 시작 단계에서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성장지연, 성인병, 암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가족 간의 대화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 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키 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담배의 유해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독성 작용이 더 크며 청소년기의 왕성한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중독이 심해서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라.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 발달에도 해롭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마. 청소년은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바.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 흡연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가.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금연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나.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 담배의 위험성을 부모님께서 직접 한번 더 알려주세요.

부모님께서 가진 흡연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 흡연예방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세요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하여 유, 초중고 학교건물은 운동장을 포함한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및 여성 흡연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흡연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라는 점에서, 여성 흡연은 태어날 2세의 건강에 유해하므로 그 피해는 일반 성인보다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을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약물의 오남용 예방

(1) 약물 오용 예방: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하기

- 약복용 사용법을 확인(투여용량, 사용시간, 올바른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한다.

(2) 약물 남용 예방: 술, 담배, 카페인, 흡입제의 중독에 빠지지 않기,

- 누군가 위의 것을 권유한다면 No라고 거절하는 집에서 연습 해보기.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천식등 폐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마.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바.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4

비만에방교육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운동량이 적어지고 식생활의 서구화, 인스턴트 식품의 만연등 소아비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당한 체중의 유지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비만 가족을 만드는 부모님의 생활습관

1. 조림보다 볶음, 튀김요리를 자주하며 음식이 짭 편이다.
2. 배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충분히 사다 둔다.
3. 식단을 짤 때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우선이다.
4. 빨리 먹으라고 재촉한다.
5. 생선보다는 육류가 주종이다.
6. 밤참을 자주 먹는다.
7.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다
8. 사흘에 한번 꼴로 음식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식을 한다.

◆ 비만한 자녀를 위한 가족이 지켜야 할 지침

1.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주며 식사와 식사 사이에 1-2회 간식을 준다.
2. 간식은 과일이나 야채 등 섬유소가 많은 것을 위주로 하며 스낵은 절대 금한다.
3. 자녀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한다.
4.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면 남기도록 가르치고 최소한 15분 이상 천천히 먹도록 한다.
5. 음식은 물론 간식도 일정한 장소에서 먹게 한다.
6. 아이 눈에 안 띄는 곳에 음식을 보관하고, 먹을 것을 요구할 때 정말로 배가 고픈지 확인한다.
7. 음식을 상벌에 이용하지 않으며 TV에서 음식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8. 야외활동을 자주 시키고 운동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 건강하려면 아래의 사백(四白)을 줄임시다.**

- 흰쌀밥, 흰설탕, 흰밀가루, 흰소금